



9주차 | 학습목차 


<b>학습목차</b>	<b>01. 기자 최은희의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운동 여학생 시위 주도</li> <li>도쿄 유학과 조선일보 입사</li> <li>기자 최은희</li> </ul>	<b>03.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 날 제정</li> <li>여성입각운동</li> </ul>
<b>학습목표</b>	<b>02. 최은희의 여성운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우회 창립</li> <li>결혼과 퇴사</li> <li>여권실천자운동클럽과 서울보건부인회</li> </ul>	<b>04.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운동 사건 사료 현상 모집</li> </ul>
<b>학습내용</b>		

9주차 |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9주차 | 학습목표 3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b>학습목차</b>	
<b>학습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사 집필에 착수했던 최은희의 도전에 주목해서 여성이 쓰는 여성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li> </ul>
<b>학습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운동 사건 사료 현상 모집</li> </ul>



## 3.1운동 사건 사료 현상 모집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3· 1 운동 사건 사료 현상 모집” 응모

- 《근역의 방향》 ‘사재(史材) 편’에 당선(1958)
  -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검거 사건의 전개 과정 및 재판 판결문 수록
  - 여성계의 축하
  - “여성이 여성의 투쟁사를 수집하여 당선사재로 국가에 제공하였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최은희의 ‘한국여성사’ 집필

- ‘잊지 못할 여류명인들’ 연재 (《한국일보》, 1962)
  - 독립운동과 민족문화에 공헌한 여성 인물 30명의 실화
  - “여성사의 중추”

《조국을 찾기까지 1905-1945: 한국여성활동비화》

(탐구당, 1973) 출간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작업

- ‘여성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최은희의 신념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작업

-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곧 자신의 삶의 기록
- 여성들의 연대와 자매애가 독립운동과 민족문화의 한 축임을 입증
- 여성이 ‘여성의 투쟁사’를 수집하고 역사를 쓰는 일의 의미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근역의 방향》에서 3.1운동에 대한 서술

- 3.1 동지 중 대구 감옥생활을 같이 한 친구들 언급
- 3.1 운동의 여성 비밀조직으로 소개한 ‘애국부인회’
- ‘3.1 정신’을 이어간 김마리아(1891-1944)와 황애덕(황에스터, 1892-1971)에 대한 평가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황애덕과 김마리아

- 1917년 9월
  - 일본 유학길에서부터 함께 한 황애덕과 김마리아
  - 도쿄에서 유학생친목단체 학흥회를 조직
- 1919년 2월 6일
  - 도쿄 유학생회 연설에서 “우리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황애덕



대한애국부인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김마리아(좌)와 황애덕(우)

[출처1] 《동아일보》 1920년 6월 9일자 2면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한국근대여성사-조국을 찾기까지》

- 여성 스스로 말하고 쓴 기록을 발굴해 사료로 포함
- 여성들의 회고록, 편지, 일기, 인터뷰 등을 사료로 활용
- 1만 명이 넘는 인물들을 추적하며 한국근대여성사 집필
-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여성 지식인들의 역사적 복원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3.1운동 참가 생존자’의 상징성

- 3.1운동기념공원 조성 추진
  - “조국이 일어난 지 어언 20여년, 그 당시 꽃 같던 소녀들은 모두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멍멍하고 기력이 쇠잔한 우리 할머니들이 나머지 생애에서 무엇을 조국에 바칠 수 있을까요?”



1958년 제39회 3.1절 기념행사

[출처02] 국가기록원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3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 최은희의 자기 서사

- 고통과 좌절, 실패의 서사
- 일제 말기 은둔과 단절을 통해 명예를 지켰지만  
해방 후에는 사회적 입지를 얻지 못함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3.1운동 참가 생존자’의 상징성

- 3.1운동 참가 여성 지식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할 방법 모색
- 독립공원으로서 3.1공원 계획 좌절
- 자서전 《여성전진 70년-초대 여기자의 회고》 출간(1980)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3.1운동 참가 생존자’의 상징성

- 3.1운동기념공원 조성 추진
  - 젊어서나 늙어서나 나라 위하는 그 마음 상록수와 같은 까닭으로  
이제 마지막 힘을 합하여 조국 강토에 3·1의 푸른 얼을 심어  
천대만대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길이 길이 그 정신을  
유전하고자 서울특별시의 후원 아래 여기 3·1 녹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1958년 제39회 3.1절 기념행사

[출처02] 국가기록원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연대기슭으로 회고한 생애

- 3.1운동 참가
- 조선일보 입사와 취재 활동
- 근우회 결성과 해소 과정
- 해방 직후 조직된 여성 단체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연대기순으로 회고한 생애

- 가족 이야기
- 여행기
- 여성 독립운동사 집필
- 3.1운동 기념사업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최은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 기원이 되는 궁중 요리를 전수하여 세계 요리에 이바지하고자 (중략) 일을 진행하던 중 일기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나의 숙환인 위장병이 악화되어 반년 간의 입원생활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헤매는 동안 무산되고 말았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최은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 “나는 일제 36년 간 조국과 아픔을 같이해 왔다.  
3·1 운동 사건으로 두 차례나 옥고를 겪었으며 시골 여학교 선생 적부터 도쿄 유학 시대까지 요시찰인으로서 아홉 번이나 경찰서 연행 또는 유치장 신세를 졌었고 미국 유학 여행권 신청도 취하를 당했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최은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 3·1 정신을 자손만대에 유산으로 물려 줄 표상으로 건설하려던 3·1 공원도 3년 동안에 연 7천여 명이 동원되어 7만 7천주의 상록수 무궁화를 심었고 독립각 만세탑의 헌납 신청도 들었으며 공원 허가도 받았건만 2천여 동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차 서울특별시시장의 철거 약속이 허사가 된 채 와해되어 버렸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최은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 (중략) 내가 사상적으로 변질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부정함이 없으며 외곬으로 나라와 겨레를 붙들고 사심 없이 일생을 지내온 그 과거 역정을 돌이켜 볼 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아니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독자 여러분도 다소나마 이 책에서 건질 것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여 마지 아니한다.”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최은희의 자기 서사

- 자신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적 활동은 글쓰기뿐
- 3.1운동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여성운동사를 집필하며 ‘최초의 여기자’의 명성 회복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최은희의 자기 서사

- 고통과 좌절, 실패의 서사
- 일제 말기 은둔과 단절을 통해 명예를 지켰지만 해방 후에는 사회적 입지를 얻지 못함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독립운동과 사상운동에 헌신했던 최은희의 사회적 공백기

- 일제 말기 협력을 거부하고 선택했던 은둔과 단절
- 해방 후 ‘3.1운동의 살아있는 증언자’로서 자신을 재발견
- 자신이 살아온 삶과 시대를 증언하는 여성사 서술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1983년, 조선일보사에 재산 기탁

- ‘여기자상 제정’ 제안
  - 최은희 사망(1984) 이후 현재까지 ‘최은희 여기자상’ 운영
- 1985년
  - 《한국개화여성열전》 출간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1983년, 조선일보사에 재산 기탁

- 1990년
  - ‘3.1공원’ 조성
- 1991년
  - 《추계 최은희 전집》 5권 완간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학습정리

- 여성 운동단체 근우회 창립
- 결혼 후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조선일보사 퇴사
- 여권실천자운동클럽과 서울보건부인을 이끈 여성 운동가
- 여성 입각 운동 추진
- 3.1공원 조성, 여성 독립운동사 집필과 여기자상 제정

9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역사, 최은희 | 4차시 최은희의 여성사 쓰기 (2)



## 다음 차시에서는

- 근대 여성 지식인의 예술, 천경자


SOURCES



[출처01] 《동아일보》 1920년 6월 9일자 2면

[출처02]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ET0061892)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67496&dsid=000000000008&gubun=search>

REFERENCE



최은희, 《근역의 방황》, 을유문화사, 1961.

최은희, 《추계 최은희 전집 1-5》, 조선일보사, 1991.

3·1 여성동지회, 《한국여성독립운동사-3·1 운동 60주년 기념》, 중앙출판, 1980.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공업순, 〈3·1 운동의 역사적 기억과 배반, 그리고 계승을 둘러싼 이념정치-3·1 운동의 보편(주의)적 지평과 과소/과잉의 대표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

박용옥,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지식산업사, 2001

서주홍, 〈일제 시기 여기자 최은희의 여성인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준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2009.

유영익,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장영은, 〈3·1운동과 감옥에 갇힌 여성 지식인들-최은희의 자기서사와 여성사 쓰기〉, 《동방학지》 185, 2018.

정종현, 〈유관순 표상의 창출과 전승-해방 이후 제작된 유관순 영화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6, 2009.

정현백, 〈‘여성사 쓰기’에 대한 (재)성찰〉, 《역사교육》 102, 2007.

최정순, 《박순천 연구》, 백산서당, 2015.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	---------------	-----------